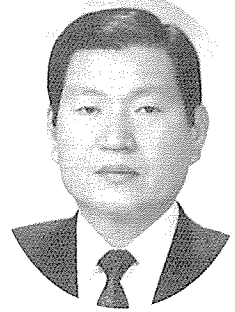


# 대한전기학회



이 동 호  
(대한전기학회 회장)

대한전기학회는 해방 후 각 사회단체의 발족과 함께 일찌기 우리나라 전기계 여러 선배들의 노력으로 1947년 7월9일 조선전기학회가 창립되어 49년 3월5일 대한전기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7년간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정상급 학회로 크게 성장 발전하였다. 47년 창립당시 1백8명의 회원이 현재 5천여명의 일반회원과 산업체, 연구소 등 1백여 특별회원 업체를 갖는 거대학회로 성장 발전하였다.

본학회는 그간 학술단체로서의 사명이요, 역할이라 할 학회지발전, 학술발표회, 조사연구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우리나라 전기계 및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동안 이룩한 학회의 설립과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주요연혁, 현황과 학술활동 실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603호로 등기를 마쳤다.

## 부산·울산에 지부설치

<60년대> 1960년대는 전기학회 중흥기의 연대로서 62년 6월7일 학회지 「전기공학」을 「전기학회지」로 개칭하고 발간, 동년 9월2일 사무소를 이전전기빌딩으로 이전하였고 63년 12월7일에는 본학회 최초의 지부인 부산지부를 설치함으로써 지방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사기진작에 일조가 되었다. 65년 3월16일에는 대한전기협회의 발기에 참여,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동년 5월29일 대전지부를 설치하였다.

66년 3월26일 회원의 공모로 본학회 상징인 마크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6월30일 문교부의 표기법에 따른 「전기용어집」이 발간되었다.

67년 7월22일에는 회의실과 사무실을 갖춘 사무소(30평)를 전기회관 305, 306호로 이전함으로써 학회 발전의 토대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동년 10월26일 본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기간중 학술발표회, 강연

## 창립 47돌...정상급학회로 성장 회원 5천여명 기술발전 큰 공헌

### 설립과 발전과정

#### 조선전기학회로 출범

<창립 및 초창기> 전기학회는 1947년 7월9일 윤일중 선생을 비롯 김종수, 석만기, 권이현, 염도유, 서석인, 이종일, 김재신, 김준식, 송용근, 이태환, 이백규, 이춘수, 정진영, 박창배씨 등 20여명이 조선전기학회를 창립하였다. 이어 정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초대 회장에 윤일중(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 부회장에 권이현, 서무, 회계, 편

집간사 4명과 5명의 평의원을 선출하였으며 48년 1월31일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47년 7월30일 본학회 최초의 위원회인 전기공예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어 및 표준규격의 제정을 추진하여 48년 1월20일 문교부의 위촉으로 중등학교 교재용 전기용어 2백어를 제정하였다.

48년 10월1일 학회지인 「전기공학」 제1집을 창간, 발행함으로써 발간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55년 1월1일에 상전 제8호(상공부)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동년 3월 31일 서울 지방법원에

회, 견학회 등 활동이 다양화 되었고 회원수도 67년말에는 1천2백여명으로 늘어났다. 68년 8월3일 울산지부를 설치하였고 1968년 1월부터 학회지를 연 6회 격월간으로 발간을 시작하였으며 전기계 원로인사 초청간담회를 대한전기유망기술자협회와 공동 주최하였다.

### 「전기공학편람」 출간

<70년대> 1970년대는 학회의 성장 발전의 연대로서 70년 2월은 4년여기간 작업끝에 결실을 본 2천여 페이지의 「전기공학편람」을 출간하였으며, 3월28일 중신회비납부회원제를 신설하였다.

특히 9월2일~4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미국전기학회(IEEE)와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전기계 최초의 '국제전기전자학술회의'에 세계 13개국에서 참가하였다.

70년 8월 울산공대에서 최초의 하계 행사인 '전기공학기술교육 및 산학협동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지금의 하계학술대회로 크게 확대 발전하였으며 상공부의 위촉으로 한국공업규격(KS)안을 71년부터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72년 4월10일 「전기의 날」 행사에서 전기학회는 영예의 대통령단체표창을 받았으며, 동년 9월에는 논문심사규정을 제정하였고 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가 67년 10월에 설치되어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자료수집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72년초에 25년사로 발간기로 계획을 수정,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73년 12월에 「전기학회 25년사」를 발간하였다.

74년에 보다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

해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75년에는 전문분야 '연구회' 설치의 필요성을 인치하고 1차로 동년 5월10일 '전기기기연구회'를 설치한 후 곧이어 계측제어시스템연구회, 76년에 전력계통연구회, 전기재료연구회, 방전 및 고전압연구회의 5개의 연구회를 설치했다.

77년 12월에는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연말간담회를 국립극장그릴에서 가졌으며 78년 9월1일자로 일본전기학회와 ①간행물교환 ②회원교류 ③학술대회공동개최에 대한 협정서를 조인함으로써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동년 11월8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정관으로 대폭 개정하였고, 79년 2월1일에 과학기술처로부터 '공익법인' 인가를 받았고 공익법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사수가 15인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평의원' 제도를 새로 도입, 이를 보완하였다. 이로써 본 학회의 주무부처가 상공부 → 동자부 → 과학기술처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科總회관으로 이전

<80년대> 70년대의 힘찬 전진에 힘입어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활동을 강화하여 1980년 4월에는 본학회와 일본전기학회간의 협정체결(78.9.1)후 처음으로 본학회회장을 비롯 회원 3명이 일본전기학회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격년으로 양학회가 학회대표단을 상호 교류하여 오고 있다.

81년 4월에는 전기·전자·전산·통신용어 1만7천2백어가 수록된 「전기용

어집」이 발간되었으며 82년 7월에는 국내 1백60여 학술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학회지를 「전기학회지」와 「전기학회는 문집」으로 분리하여 각각 월간으로 대폭 확대 발간함으로써 학술활동사업을 크게 강화하였다.

83년에는 학회 연간 예산 규모가 최초로 1억원대를 돌파하는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고 회원수도 3천명을 넘어서는 정상급 학회로 크게 발전하였다.

84년 11월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부회장을 3인에서 4인으로 1명 증원 선출하였고 84년 7월 20~21일 부산대에서 개최된 '하계학술대회' 행사는 발표논문편수가 최초로 1백편을 넘어섰으며 특히 동년 12월 30일에는 본학회 사무실을 중구 수표동 '전기회관' 사무실에서 역삼동 테헤란로변의 '과학기술회관'으로 크게 확장 이전하였다. 사무실, 회의실, 서고 등 전기회관에서보다 30평이 늘어난 60평을 확보함으로써 20여년간 수표동시대에서 상남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86년 7월9일에는 본 학회 단독행사로서는 처음으로 국제행사라 할 한·일 '전기재료 및 방전'에 관한 심포지엄을 제주도의 KAL 호텔에서 개최하여 36편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88년에는 국제회의가 3회 개최되었는 바 4월9일~11일까지 쉐라톤위커틀 호텔에서 '국제전력전자 심포지엄'과 8월19일~21일까지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한·미 전문가 시스템' 세미나가 한국과학재단 지원으로 열렸으며 6월22일~25일까지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국제회의를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한국에 유치하여 '전력계통 및 발전소재'라는 주제로 IFAC 국제 심포지엄을 세계 31개국에서 5백여명이 참가하여 논문 1백80여편을 발표함과 동시에 국내유수의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고적지 관광 등을 실시하므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 향상은 물론 우리학회의 국제화에 진일보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87년 7월3~4일 포항공대에서 개최된 본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가 합동으로 준비한 '전기·전자공학학술대회'에서는 전국에서 1천3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17개 분과에서 4백14편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동년 7월9일(목)에는 과학기술회관 2층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창립 40주년기념 학술대회를 한전 서울연수원에서 국제, 국내 SESSION으로 나누어 1백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학술대회 논문 550편

<90년대> 우리학회의 90년대는 그야말로 장년학회로서의 확고한 기반아래 더욱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명실상부한 선도적인 학술단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90년도 우리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2개 월간지중 하나인 「전기학회논문지」 논문편수가 매월 12편, 연간 1백50여편 게재에서 94년은 매월 20편씩 연간 2백40편으로 대폭 확대 발간하고 있으며 하계학술대회의 발표논문편수와 참가인원에서도 70년 제 1회 행사(15편)를 시작한 이래 91년도에 최초로 2백편

이 넘어섰고 총 7백여명이 참석하였으며 93년도 대회에서는 4백편의 논문발표와 참석인원이 1천4백여명에 이르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94년도의 7.21(목)~23(토)까지 경주조선호텔, 콩코드호텔에서 개최되는 하계학술대회에는 현재 논문발표신청 편수가 지금까지 사상 유례없는 5백50편이란 많은 논문이 학계·산업계·연구소에서 발표신청해 옴으로써 금년도 참석예정인원은 최소 1천6백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전기학회는 여러 학술발표행사중 '하계학술대회'를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의 전기공학 학술대체제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

### 주요 현황

전기학회의 주요학술활동 사업은 크게 학회지, 논문지, 영문지 발간 등 3종의 발간사업과 하계학술대회를 비롯 추계학술대회, 강연회 및 11개 전문분과연구회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 학술발표사업이 핵심사업으로서 이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KS 규격제정, 당면과제에 대한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기술한 각종 '기술보고' 등 학술 및 조사연구사업, 외국선진학회와의 교류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활동을 비롯 산학간담회, 산업시찰견학회, 총회, 각종위원회 등 제행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기학회의 주요연혁과 주요 학술활동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개 월간지도 발행

<발간사업현황> 학회 사업의 제일 큰 핵심사업인 학회지 발간사업은 48년 10월1일 「전기공학」 제 1집이 창간된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68년 격월간, 79년 월간, 82년 7월 학회지·논문지분리 발간 이후 현재 「전기학회지」와 「전기학회논문지」를 각각 월간으로 연 12회씩 발간하고 있고 88년 영문 논문지인 「Journal of KIEE」를 창간 연 2회씩 반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 내년엔 국제학술대회

<학술발표사업현황> 우리학회의 2대 핵심사업중의 하나인 학술발표사업은 왕성한 추진력과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날로 행사가 활성화되어 연간 15여회의 각종 학술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본학회의 주요학술활동으로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대별되는 바 춘계행사는 '전기기기연구회'를 비롯 전문분야 11개 연구회 중심으로 학술발표, 심포지엄, 워크숍 등이 열리고, 또한 4월 과학의 달을 기념하여 '과학의달 기념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하계에는 전국대회인 '하계학술대회'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있고 추계에는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개최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는 약 2~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95년에 제3회 국제전력전자학술회의를 개최 준비중에 있고, 97년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다.

## 11개 연구회 설치 운영

〈연구회 현황〉 전기기기연구회를 75년에 설치한 것을 비롯, 제어계측연구회, 전력계통연구회, 전기재료연구회, 방전 및 고전압연구회, 전자기산기연구회, 공업교육연구회, 전력전자연구회,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 로보틱스 및 자동화 연구회, 회로 및 시스템 연구회 등 11개 연구회가 설치운영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일본학회와 교류 협정

〈국제교류사업현황〉 우리학회는 국제교류사업으로 선진외국학회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78년 9월1일자로 본학회와 일본전기학회간의 협정(①회원교류 ②간행물교류 ③학술대회공동개최)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격년제로 양학회 대표단 파견 등 회원교류 및 간행물 교환, 학술대회 협력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오고 있다.

금년도는 3.28~31까지 일본 동경 무사시노시 세이게이 대학에서 개최된 일본전기학회 전국대회에 이동호회장, 유석구부회장, 광희로이사, 진동신사무국장 4인의 대표가 참가하여 'The Overview of Electric Power Business in Korea'란 주제로 이동호회장의 특별강연을 하고 78년에 조인된 양국학회 학술교류협정의 내용을 강화한 개정된 교류협정조인식에 참가하였다.

80년 3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전기관계 국제기구인 CIGRE(국제고전압대전력망기술회의)의 정회원국으

로 가입과 동시에 우리학회도 정 단체 회원(Collective membership)으로 가입하여 매 2년마다 열리는 CIGRE 총회대회에 논문발표와 10여명씩 참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IEEE(미국전기전자학회)에도 논문발표차 많은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세계에너지회의(WEC) 한국국내위원회에도 학회가 창립 Member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해서 학회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과 국제화를 지향한 기반을 한 단계씩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전기공학용어 제정

〈조사연구사업현황〉 조사연구사업은 47년부터 외부의 기술검토 의뢰 및 각종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71년부터 정부의 공업표준화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상공부로부터 공업표준규격(KS)제정(안)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진행되었고 76년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에 따라 중전기제품의 설계기준의 제정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사업이 8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 KS 규격제정 전기분야 총 4백여종 제정을 비롯, 기계류 국산화 및 설계표준화를 위한 변압기설계기준 등을 76년부터 84년까지 총 36종을 제정하였고 과학기술용어집(전기공학편)의 7천5백36용어를 제정 과총연합회에 제출(73년)하였으며 90년 전력계통 과도해석프로그램(EMTP)연구를 비롯 원전기술기준 검토자문용역(93~) 등 산업체로부터 각종 학술 및 조사연구용역, 기술검토

등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 올 예산규모 4억원

〈행사·사무국 현황〉 우리학회는 제행사로 정기총회(11월), 이사회(매월), 평의원회(매분기), 지부장회의, 연구회 간사장회의, 상훈 심의위원회, 연말 간담회, 전우클럽회원 초대간담회 등을 비롯 편집위원회(매월), 조사위원회(매월), 학술위원회(연 4~5회) 등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또한, 조사위원회 산하의 기술조사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당해년도 전기공학의 학술발전과 학회발전에 공히 큰 회원에게 공로상, 학술상, 논문대상, 논문상, 기술대상, 기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회원현황은 47년 창립당시 1백8명의 회원에서 82년 1천2백명, 94년 현재는 5천여명으로 크게 늘었고, 예산규모는 62년도의 연간 예산액 32만8천원에서 87년 1억6천5백만원, 94년 현재 4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학회의 의결기구로는 총회, 평의원회(1백50명), 이사회(24명) 및 사무국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확고한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끝으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학회는 계속해서 과학기술학술단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 회원의 협조와 참여 속에 일치단결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내실있고 보다 연구정진하는 학술단체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